

제주지역 관광 연구동향에 관한 고찰

-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장성수* · 김종기**

< 차례 >

- I. 서론
- II. 선행연구 고찰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및 고찰
- V. 결론 및 시사점

국문요약

1973년 전국 국립대학 최초로 제주대학 관광개발학과 신설이후, 제주지역에서 관광분야의 연구가 심층화된 계기는 1990년 이후 관광관련 대학원 개설 및 1997년 제주관광학회가 창립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관광분야 연구는 그동안 관광현상에 대한 실증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져 옴으로써 관광현상을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에서 이루어진 관광분야 연구에 대한 동향분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발표·게재된 제주관광 연구논문들에 대한 내용 분석이 필요하며, 그간 축적된 연구실적들을 객관적 기준아래 음미해 보는 작업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박사수료

이에 다음 고찰에서는 1982~2010년까지 제주지역에서 제주관광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 및 학술지논문 총 349편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제주관광 연구에서 다루어진 연구주제와 대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내용분석과 새로운 분석기법인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의 시기별 연구동향을 종합 제시해 봄으로써 향후 제주지역 관광관련 연구자들로 하여금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분야 선정단계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제주관광, 관광연구, 내용분석, 의미연결망 분석.

I. 서론

관광학은 종합학문이자 응용학문이다. 따라서 특정분야의 연구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실천과학적 학문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관광학은 학문영역이 너무 방대하여 자칫 모호해질 수 있다(이연택, 1994).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경기대학교에 관광관련 학과가 처음으로 태동된 이후,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에 설치된 관광관련 학과만 총 261개로 관광학연구의 산실은 양적으로 급성장해 왔다. 또한 1972년 한국관광학회가 창립된 이래 거의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광분야에 대한 연구논문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해 과학적 분석방법의 결여로 인한 신뢰성·타당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해외 학술지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기간 중 투고된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연구분야·연구방법·질적수준 등을

다양한 평가척도로서 분류·고찰하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활용해, 학문분야의 연구경향을 진단하고 비판함으로써 향후 학술활동 발전의 계기로 삼아왔다(최규환, 2003).

제주지역은 1973년 전국 국립대학 최초로 제주대학 법문학부에 관광 개발학과가 신설된 이후 1990년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 개설, 1997년 제주관광학회 창립, 1999년 이후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와 관광개발학과 석·박사과정의 연이은 개설 그리고 탐라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개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발표·게재된 제주관광 연구동향에 관한 고찰로는 장성수(1987)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 후 국내·외 관광관련 학술지 및 학위논문에 대한 내용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나, 제주지역에서 발표된 관광연구 실적들에 대한 동향분석은 전무했다고 보아진다.

제주의 관광산업이 양적성장을 넘어 질적성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온 지역내 관광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곧 지금까지의 제주관광의 변천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간의 제주지역에서 제주관광을 주제로 발표·게재된 연구 논문들에 대한 내용분석이 필요하며, 그간 축적된 연구실적들을 객관적 기준아래 음미해 보는 작업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다음 고찰에서는 1982~2010년까지 제주지역에서 제주관광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 및 학술지논문 총 349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의 시기별 연구동향을 파악해 보는 동시에 제주관광 연구동향 전반을 종합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국내·외 관광연구 동향

우리나라 관광분야 문헌연구의 대부분은 주요 학술지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내용분석을 위주로 한 관광연구 동향에 관한 국내 논문으로서는 장성수(1987), 김정근(1990), 김사현(1999), 최규환(2003), 이동훈 외(2004), 김대권(2006), 홍성화·최병길·이성은(2006) 등의 연구를 들어 볼 수 있으며, 해외 연구로는 Dann, Nash, & Pearce (1988)과 Xiao & smith(2006) 등의 연구가 유명하다.

장성수(1987)는 제주관광이 싹트기 시작한 1959~1986년까지의 제주 관광에 관한 연구보고서 및 각종 간행물·발표자료 등을 근거로, 제주관광 연구에 관한 연대별·분야별 동향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 한국관광학회의 9개 연구분야를 원용해 지역현실에 맞게 연구분야를 분류하여 관광자원·관광개발·관광사업·관광행정·국제관광·관광지리 등 6개 항목으로 조정하고 분석의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국내 학술지인 『관광학연구』를 해외 학술지와 비교·분석한 연구로는 김정근(1990)과 김대권(2006)의 연구가 있다. 김정근(1990)의 연구는 우리나라 관광분야 학술지를 분석한 최초의 논문으로 1977~1988년까지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김대권(2006)의 연구는 2001~2005년까지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김사현(1999)과 최규환(2003), 홍성화 외(2006) 등의 연구는 우리나라 관광분야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내용분석이다. 김사현(1999)은 1994~1999년까지 한국관광학회 발간 『관광학연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규환(2003)은 1989~2002년까지 한국관광·레저학회 발간 『관광·레저연구』를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홍성화 외(2006)의 연구에서는

1995~2004년까지 국내 13개 학술지에 수록된 축제 및 이벤트와 관련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복수 코더를 이용한 신뢰도를 계산함으로써 내용분석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연구주제를 비롯하여 연구방법론의 성향, 피인용도 분석 및 기관별 논문생산성, 통계분석기법, 조사방법유형, 질적수준 등 다양한 분석지표를 활용한 내용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우리나라 관광관련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시도한 연구로는 이동훈 외(2004)의 연구가 있다. 이동훈 외(2004)의 연구는 1987~2002년까지 우리나라 관광관련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학문분야별 · 연구대상별 연구경향과 학위수여 기관별 연구경향 등이 분석되었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연구대상으로 삼은 국내 · 외 학술지 모두에서 관광숙박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호텔관련 연구로의 편향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외 관광분야 문헌연구로는 『Annals of Tourism Research』와 『Journal of Leisure Research』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한 Dann, Nash, & Pearce(1988)의 연구와 『Annals of Tourism Research』의 주요 색인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시도한 Xiao & Smith(2006)의 연구 등이 유명하다.

Dann, Nash, & Pearce(1988)는 『Annals of Tourism Research』와 『Journal of Leisure Research』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방법 · 접근방법 · 통계분석기법 등의 분석지표를 이용하여 각 지표별 두 학술지간의 연구성향을 비교 · 분석하였다.

Xiao & Smith(2006)는 1973~2003년 사이 『Annals of Tourism Research』에 게재된 연구논문들의 연구성향과 발전정도를 주제어에 관한 분석방법과 주요색인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광연구 내용분석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기존 정량적 방법 중심의 관광연구가 정성적 방법 연구로의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이벤트 및 축제, 관광지리학, 카지노 등 특정분야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가 나타나면서 점차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피인용도의 분석, 질적수준 등 다양한 분석지표를 활용한 연구가 등장해 왔다.

그동안의 관광분야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를 통해 장기간의 관광현상을 연구동향으로 정리·분석되어 옴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관광현상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향후 관광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로써 활용되고 있다.

2. 내용분석

내용분석이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의미 혹은 핵심 아이디어를 조사하는 연구방법(박한우·Leydesdorff, 2004; Krippendorff, 1980)으로, 서적·잡지·신문 등 간행물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임의항목을 추출·분석하는 기법이다(오익근, 2000). 관광분야에서도 연구논문의 내용분석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관광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관광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 기법은 역사적 자료 또는 과거 신문사설을 분석한다거나, 비록 설문지나 면접 등을 통해 자료를 얻었더라도 그것을 재확인하기 위해 응답자가 남겨 놓은 다른 자료를 분석할 경우 주로 사용된다. 특히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가 너무 방대할 경우, 자료 중 일부를 표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내용분석을 위해 추출되는 항목이 명백한 경우 그 단어의 수를

점검하면 되므로 방법이 쉽고 신뢰성도 높지만 타당성은 낮다. 반면에 추출되는 항목이 내재되어 잠재적인 경우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신뢰성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김정근, 1990). 따라서 연구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코딩자료에 대한 신뢰도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분석을 위한 기법중 하나인 의미연결망 분석은 메시지 안에 있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들을 묘사하는 연구방법이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관계의 형태에 주목하는 기존의 연결망 분석에서 발전되어 관계의 형태 속에서 송수신되는 내용들(contents)까지 분석할 수 있는 의미 구조를 찾는 방법론으로써 주목받고 있다(박성희, 2009; 한광중, 2003; Wasserman & Faust, 1994).

이 분석방법은 선정된 핵심개념을 매듭(node)으로 개념과 개념간의 관계를 연결(link)하여 지식(knowledge)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지식을 시각화하여 지식의 구조를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의미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학습된 지식이 하나의 매듭으로 기억 되게 되고, 이러한 매듭들이 서로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활성화 확산모형(spreading activation model)'이 설득력이 있다. 즉 하나의 매듭이 점화되는 경우 활성화 전이에 의해 다른 매듭이 활성화되고, 다시 연결된 다른 매듭들이 활성화되어 간다(Collins and Loftus, 1975). 아울러 밀접하게 연결된 매듭 사이의 거리는 짧고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며, 두 매듭사이의 연결이 멀어질수록 활성화 정도는 약해진다.

즉, 의미연결망의 구조는 핵심 단어와의 의미론적 연관(semantic association)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단어라는 요소로 구성된 의미연결망에서 의미론적 연관은 단어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공출현 빈도를 통해

관계론적 시각에서 중요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박한우·Leydesdorff, 2004).

기존의 내용분석은 비교적 연구자의 주관에 의존하는 기준에 따른 텍스트 내용의 분류 등으로 인해 연구자의 주관에 반영될 소지가 많은 한계를 지닌다. 반면에 의미연결망 분석은 단어들 사이 관계의 강도를 두 단어가 동시에 일어나는 숫자로 정의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으로부터 자유롭고 내용분석보다 훨씬 신뢰할 수준의 메시지 내용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의미연결망 분석은 비가시적인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커다란 장점을 지니고 있다(한광중, 2003).

Ⅲ.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및 설계

이 연구는 제주관광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1982~2010년까지 제주대학교와 탐라대학교의 관광관련 대학원 학위논문과 지명도 있는 3개 지역학술지에 게재된 제주관광 관련논문 총 349편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시 말해, 학위논문의 경우 제주대학교와 탐라대학교의 관광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학술지의 경우¹⁾ 제주관광학회가 발간한 『제주관광학연구』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후보지인 탐라문화연구소의 『탐라문화』, 제주학회의 『제주도연구』로

1) 『제주관광학연구』는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는 아니지만 제주관광학회가 발간하는 대표적 학술지이며, 『제주도연구』는 제주와 관련된 전문야를 망라하는 연구를 다루는 지역학회의 특성을 반영해 포함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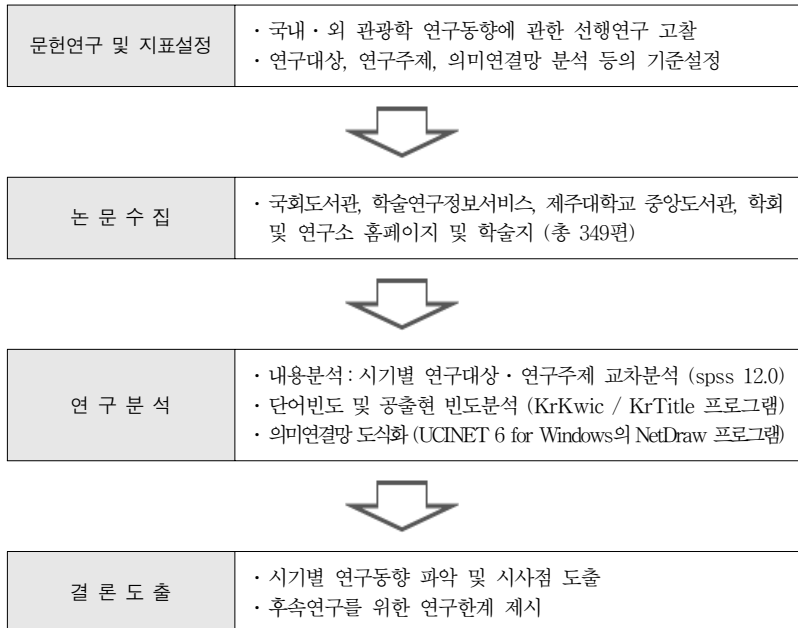
한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내용분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내용분석이 갖는 신뢰도에 대한 약점을 의미연결망 분석으로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미연결망 분석은 연구자가 연구의도를 함축시킨 논문 제목 속에서 출현하는 단어들간의 강도를 분석하여 일정기간동안 관광학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연구대상이나 주제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내용분석이 갖는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 개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설계는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1] 연구설계



2. 내용분석 지표설정

1) 연구대상의 분류

이동훈 외(2004) 연구는 연구대상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카지노업, 관광편의시설 등 7개 사업에 관광교통업을 추가하여 총 8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관광학은 종합사회과학으로서 다양한 사회현상을 아우르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연구대상은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박호표, 1999).

따라서 제주관광 연구논문들을 분석하기 위해 이동훈 외(2004)의 연구와 김대권(2006), 안현주(2007)의 연구 등 기존 선행연구와 제주지역내에서 발표·게재된 논문들에서 다루어진 연구대상들을 중심으로 총 8개 항목으로 연구대상을 분류하였다.

〈표 1〉 연구대상 분류지표

구분	이동훈 외(2004)	김대권(2006)	안현주(2007)	연구설계
분류지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교통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교통업, 항공업, 외식업, 축제·이벤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교통업, 관광행정, 공간연구, 외식업, 축제·이벤트, 문화 및 유산, 관광상품, 지역주민, 관광객, 관광일반	여행·교통, 숙박·외식, 관광시설·편의시설, 컨벤션·이벤트·축제, 카지노, 문화·유산, 레저스포츠, 관광일반
총계	8개	11개	12개	8개

2) 연구주제

관광분야 문헌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주제에 대한 분류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돼 왔다. 장성수(1998)는 제주관광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관광자원, 관광개발, 관광사업, 관광행정, 국제관광, 관광지리 등 6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김사현(1999)은 『관광학연구』의 연구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호텔분야, 관광일반, 계량모형, 여가분야, 관광정책, 여행·여행업, 식음료·외식, 기타 등 8개 항목을 분석의 틀로 삼았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 21개 세분류로 수정된 학술연구분야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관광 연구주제를 분석해 보고자 장성수(1998), 김사현(1999)의 연구와 한국연구재단의 21개 학술연구분야를 토대로 하여, 제주지역내에서 발표·게재된 논문들의 연구주제들을 중심으로 총 7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표 2〉 연구주제 분류지표

구분	장성수(1998)	김사현(1999)	한국연구재단(2009)	연구설계
분류지표	관광자원, 관광개발, 관광사업, 관광행정, 국제관광, 관광지리	호텔분야, 관광일반, 계량모형, 여가분야, 관광정책, 여행업, 식음료·외식, 기타	관광학일반, 관광정책, 관광비교, 관광정보, 관광역사, 관광법규, 관광행정, 관광경영, 관광경제, 여행사/항공사, 호텔/외식산업, 관광마케팅, 관광자원, 관광개발, 관광지계획설계, 국제관광, 관광·레저사업, 국제통역, 관광행동/심리, 관광문화, 컨벤션/이벤트, 기타관광학	관광정책·행정, 관광정보, 관광경영·경제, 관광마케팅, 관광개발, 국제관광, 관광행동/심리
총계	6개	8개	21개	7개

3. 자료의 신뢰도

내용분석에서 신뢰도는 코딩하는 사람의 기술, 통찰력, 경험, 카테고리의 명확도, 코딩규칙, 자료의 모호성 등에 달려 있다(홍성화 외, 2006). 따라서 연구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확한 코딩지침을 만들고 코더들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분석을 통한 자료의 사전 신뢰도 검증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코딩항목에 대한 복수 코더 사이의 일치비율로 나타나는 코더 간의 신뢰도를 보고해야 한다(배현석, 2001).

이 연구에서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박사과정 수료생 2명이 연구자료 코딩에 참여했으며, 각 코더들은 내용분석 지표항목에 대한 코딩지침에 따라 총 349개의 논문내용을 독립적으로 코딩하였다. 일반적으로 코더간 합치점의 기준은 최소한 80% 수준을 넘어야 한다(배현석, 2001).

본 연구의 코더간 코딩자료의 검증결과, 논문유형과 논문발표 및 게재 시기의 경우 100% 일치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에 대한 신뢰도는 0.9198, 연구주제에 대한 신뢰도는 0.8653으로 검증돼 코더간 신뢰도는 최소 0.8653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코더간 신뢰도 검증결과

구분	코더간 일치 코딩 건수	코더간 불일치 코딩 건수	코더간 신뢰도
논문유형	349	-	1.000
발표시기	349	-	1.000
연구대상	321	28	.9198
연구주제	302	47	.8653

주: 신뢰도 계수 = $2M / (N1 + N2)$, M은 2명의 코더간 일치한 코딩 건수, N1과 N2는 코더 1과 2의 코딩 건수

IV. 분석결과 및 고찰

1. 연도별 게재논문 수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1982~2011년까지의 학위논문 및 학술지 연구 논문은 총 349편으로, 그 중 학위논문이 총 179편이고 지역학술지 연구 논문은 170편으로 조사됐다. 학위논문의 경우 석사학위 논문이 163편, 박사학위 논문 16편이었다. 그리고 지역학술지 연구논문의 경우는 「제주 관광학연구」137편, 「제주도연구」19편, 「탐라문화」14편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연도별 연구논문 수

구분		이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학위 논문	석 사	16	3	6	8	7	13	21	23	9	5	5	10	15	13	9
	박 사	-	-	-	-	-	-	-	-	-	-	1	1	5	5	4
학술지 게재 논문	제주 관광학 연구	-	-	13	15	14	18	12	8	6	7	10	7	8	9	10
	제주도 연구	6	1	1	-	-	1	2	1	1	3	1	2	-	-	-
	탐라문화	8	1	-	-	-	-	-	-	-	-	-	-	-	1	4
총계		30	5	20	23	21	32	35	32	16	15	17	20	28	28	27

학위논문의 경우 1990년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사 과정 개설을 계기로 선보이기 시작해, 이후 제주대학교 및 탐라대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에 석·박사과정이 신설되면서부터 증가해 왔다. 다만 2004년도에 9편으로 급감하였는데 이후로 완만한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학위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질적 수준 향상이 더욱 높아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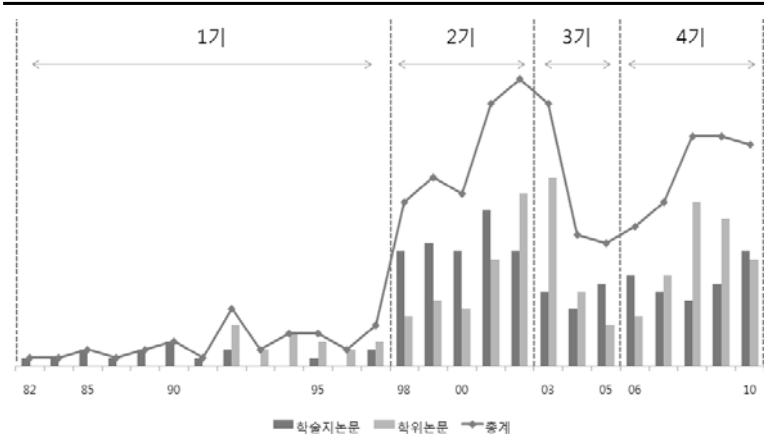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역학술지 게재논문의 경우도 학위논문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 왔다. 1997년 제주관광학회가 창립돼 『제주관광연구(현 제주관광학연구)』 창간호가 발간된 다음 해부터 연간 10여 편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2003년 이후로는 소폭의 감소세와 증가세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1982~2010년까지 제주관광 정책 추진에서 나타난 주요 계기와 연도별 연구논문 수를 고려해 다음 <표 5>와 같이 4개 기간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1982~2010년까지 제주관광 연구동향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기(1982~1997년)부터 제주관광 연구논문이 등장하였으며, 주로 지역학술지 게재논문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극소수 학위논문이 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2기(1998~2002년)는 제주관광 연구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로 특히 2008년 『제주관광학연구』의 발간을 계기로 지역학술지 논문게재가 왕성해지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 신설로 인해 2001년 이후 학위논문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기(2003~2005년)의 경우 2003년도는 학위논문 발표가 가장 많았던 시기로, 이는 2000년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 및 탐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이 개설되었던 때문으로 해석된다. 2003년 이후 연구논문의 수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던 3기를 지나, 4기(2006~2010년)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잠시 정체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표 5〉 제주관광 연구시기 분류



구분	1 기	2 기	3 기	4 기
기간	1982~1997	1998~2002	2003~2005	2006~2010
표본수(편)	35	131	63	120
주요 계기	<p>제주 학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년 「탐라문화」 창간호 발간 · 1994년 「제주도연구」 창간호 발간 · 1990년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제주관광학연구」 창간 · 1999년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 개설 · 2000년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 개설 · 2000년 탐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 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 개설 · 2004년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박사과정 및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탐라문화」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 2009년 제주관광학회 사단법인 등록
	<p>관광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5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 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추진(3개단지 10개지구 등 지정) · 1997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변경(10개 지구 추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중국인관광객 무시증입국 허용 · 2000년 제주도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및 JDC 내 국인면세점 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관 · 2004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공포 · 2005년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제주방문의 해 ·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및 제주올레코스 개장 · 2009년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프로젝트로 MICE산업 지정

2. 연구대상별 동향

1982년 이후 제주관광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진 분야들을 살펴보면, 총 349편의 논문 가운데 제주관광 전반을 다룬 연구가 129편(37.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호텔 및 식음료를 중심으로 한 숙박·외식관련 논문이 71편(20.4%)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관광시설 및 편의시설과 컨벤션·이벤트·축제(각각 36편, 10.3%), 문화 및 유산(24편, 6.9%), 여행 및 교통(23편, 6.6%), 카지노(16편, 4.6%), 레저스포츠(15편,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관광 연구가 태동한 1기(1982~1997년)에는 관광일반, 숙박·외식, 문화·유산, 관광시설·편의시설, 여행·교통에 국한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1997년 제주관광학회의 창립과 2000년 제주도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등의 영향으로 제주관광의 연구대상은 컨벤션·이벤트, 축제, 카지노, 레저스포츠 분야 등 다양화 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표 6〉 연구시기별 연구대상의 변화표

(단위: 편, %)

구분	전체	1기('82~'97)	2기('98~'02)	3기('03~'05)	4기('06~'10)
여행·교통	23 (6.6)	3 (8.6)	13 (9.9)	5 (7.9)	1 (0.8)
숙박·외식	71 (20.4)	9 (25.7)	34 (26.0)	15 (23.8)	13 (10.9)
관광시설·편의시설	36 (10.3)	1 (2.9)	7 (5.3)	8 (12.7)	20 (16.7)
컨벤션·이벤트·축제	36 (10.3)	-	17 (13.0)	2 (3.2)	17 (14.2)
카지노	16 (4.6)	-	7 (5.3)	1 (1.6)	8 (6.7)
문화·유산	24 (6.9)	5 (14.3)	2 (1.5)	5 (7.9)	12 (10.0)
레저스포츠	15 (4.3)	-	4 (3.1)	5 (7.9)	6 (5.0)
관광일반	129 (37.0)	17 (48.6)	47 (35.9)	22 (34.9)	43 (35.8)
총 계	349 (100)	35 (100)	131 (100)	63 (100)	120 (100)

연구시기별로 분류해 보면, 1982~2010년에 이르기까지 관광일반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1982~2005년까지 숙박·외식에 대한 연구비중이 높다. 하지만 4기(2006~2010년)에 들어서면서 제주관광 연구대상은 관광시설 및 편의시설과 함께 컨벤션·이벤트·축제로 변화해 가는 경향이 엿보인다.

특히 연구논문의 수가 증가한 2기(1998~2002년)와 4기(2006~2010년)를 비교해 보면, 과거 2기에는 여행업을 중심으로 한 여행·교통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았으나 4기에는 여행·교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에 불과했다. 4기의 경우 35.8%의 비중을 차지한 관광일반의 연구와 1편에 불과한 여행·교통분야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에서 비교적 균형있는 연구가 수행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동향은 1990년대 중반이후 지역관광사업의 다양화·복합화가 촉진되면서, 문화관광·레저스포츠·의료관광·MICE 등 제주관광의 연구대상이 폭넓게 확대된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3. 연구주제별 동향

연구주제의 연구시기별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총 349편의 연구논문 중 관광행동·심리에 대한 연구가 128편(36.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관광마케팅 68편(19.5%), 관광경영·경제 46편(13.1%), 관광정책 43편(12.3%), 관광개발 29편(8.3%) 등의 순으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시기별로 연구주제의 비중을 살펴보면, 연구대상별 동향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분야에 편향된 연구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진다. 1982년 이후 모든 시기에서 인식·만족·태도변화 등 관광행동·심리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연구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관광에 대한 연구논문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7〉 연구시기별 연구주제의 변화

(단위: 편, %)

구분	전체	1기('82~'97)	2기('98~'02)	3기('03~'05)	4기('06~'10)
관광정책·행정	45 (12.9)	4 (17.1)	18 (14.5)	10 (4.8)	17 (14.2)
관광정보	14 (4.0)	1 (5.7)	4 (3.1)	4 (6.3)	4 (3.3)
관광경영·경제	46 (13.1)	6 (17.1)	26 (19.8)	9 (14.3)	5 (4.2)
관광마케팅	68 (19.5)	2 (5.7)	30 (22.9)	13 (20.6)	23 (19.2)
관광개발	29 (8.3)	6 (17.1)	13 (9.9)	4 (6.3)	6 (5.0)
국제관광	19 (5.4)	1 (2.9)	4 (3.1)	3 (4.8)	11 (9.2)
관광행동·심리	128 (36.7)	12 (34.3)	35 (26.7)	27 (42.9)	54 (45.0)
총 계	349 (100)	35 (100)	131 (100)	63 (100)	120 (100)

특히 국제관광 연구는 1998년 중국인관광객 무사증입국 허용과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외국인관광객 수용태세 확충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국제관광정책의 활발한 추진으로 말미암아, 일본인과 중국인관광객 유치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증가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관광마케팅 연구를 제외하고 관광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관광경영·경제에 대한 연구는 2기(1998~2002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관광산업이 점차 고도화되고 다양화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주제가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 행동·심리에 편향되어 왔으며, 관광경영·경제, 관광정보,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진했다는 점이다.

또한 비록 관광정책·행정분야에 관한 연구가 꾸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2기 이후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08년 제주관광공사의 출범을 둘러싼 지역관광조직의 재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새로운 역할부여 등 관광조직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4. 의미연결망 분석

이 연구고찰의 분석대상인 349편 연구논문의 제목에 나타나는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KrKwic프로그램을 이용해 단어의 빈도수를 추출하였다. 제목에 나타나는 단어를 추출하기 위해 형용사와 조사 등을 제거하였으며, 아울러 이 연구가 제주관광 연구논문들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제주’와 ‘관광’이란 2개 단어를 제외하여 남은 총 481개의 단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연구논문 제목상에 나타난 단어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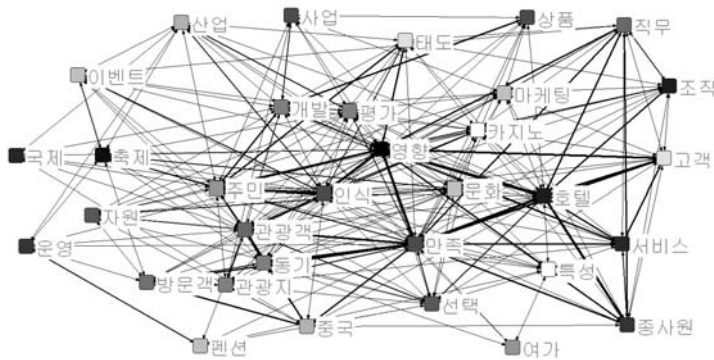
빈도(회)	단어수(개)	단 어
71	1	만족
50~54	2	영향, 호텔
45	1	개발
31~35	2	관광객, 인식
20~26	7	산업, 주민, 고객, 문화, 동기, 서비스, 축제
15~19	8	활성화, 종사원, 카지노, 평가, 마케팅, 선택, 상품, 조직
10~13	17	관광지, 직무, 질, 여가, 자원, 중국, 지역, 태도, 국제, 발전, 운영, 이벤트, 특성, 개선, 방문객, 정책, 펜션
9 이하	443	경쟁력, 사업, 유치, 참여, 컨벤션, 골프장, 도입, 목적지, 섬, 이용객, 중성 전략 행동 휴양 모형 여행사 인터넷 정보 환경 등

분석결과 ‘만족’이 71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향’ 50회, ‘호텔’ 54회, ‘개발’ 45회, ‘관광객’ 35회, ‘인식’이 31회, ‘산업’ 26회, ‘주민’ 25회, ‘고객’ 24회, ‘문화’ 23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지금까지의 제주관광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관광객 또는 지역주민의 영향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호텔’ 및 ‘축제’, ‘관광산업’, ‘문화관광’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온 것으로 해석된다.

총 349편의 연구논문 중 연구제목에서 추출된 총 481개의 단어를 대상으로 하여, 의미연결망을 도식화한 결과는 다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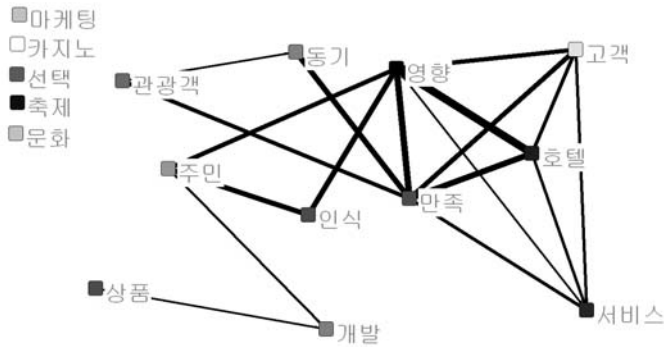
[그림 2] 1982~2010년 제주관광 연구의 전체 네트워크 경로



네트워크 지도에서 연결망의 선은 두 단어가 동시에 출현한 빈도를 의미하며, 선의 굵기는 두 단어간 공출현 빈도와 비례한다. 또한 다른 단어와 동시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는 중앙에 놓이며, 두 단어간 관계가 강할수록 상호 가까이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1982~2010년까지 제주관광 연구대상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제’, ‘이벤트’, ‘호텔’, ‘카지노’, ‘상품’, ‘여가’, ‘펜션’, ‘관광지’, ‘자원’, ‘서비스’, ‘관광객’ 및 ‘지역주민’ 등의 단어들로 표출됐다. 또한 연구주제와 연관된 단어로는 ‘개발’, ‘마케팅’, ‘만족’, ‘선택’, ‘동기’, ‘평가’, ‘태도’ 등이 자주 사용되었다. 특히 「‘호텔’에 관한 ‘만족’ 및 ‘영향’은 지금까지 제주 관광 연구논문의 발표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다루어 왔던 연구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1982~2010년 제주관광 연구제목상 주요 단어간 네트워크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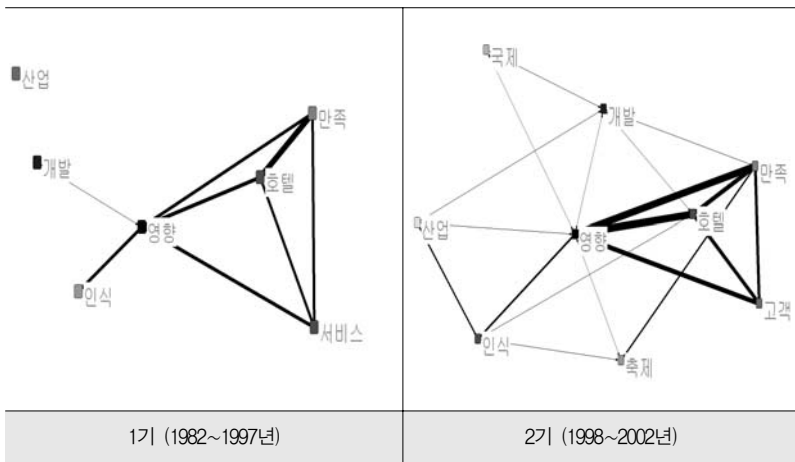


이를 연구시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식화된다.

1기(1982~1997년)에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추진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다. 이 기간중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지도의 중심에 위치한 ‘호텔’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만족’과 ‘서비스’,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개발’에 대한 ‘영향’과 ‘인식’에 관한 연구도 비중있게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호텔’과 ‘만족’간의 관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므로써, 이 시기 제주관광 연구자들은 제주지역 관광호텔에 관한 만족연구를 가장 비중있게 다루었다고 풀이된다.

[그림 3] 1982~2002년 제주관광 연구 제목의 네트워크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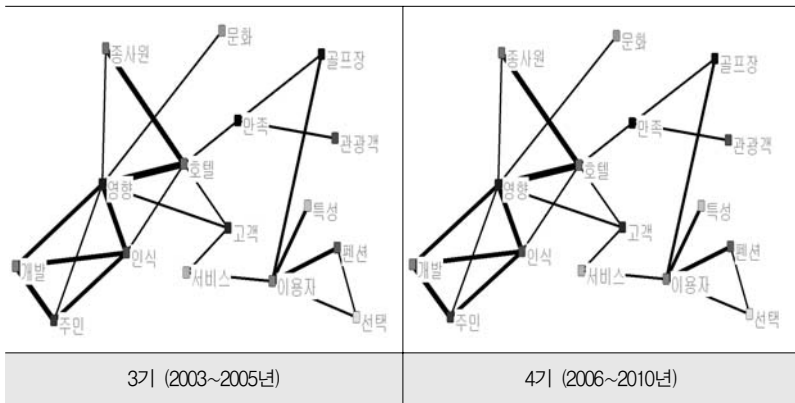


2기(1998~2002년)는 중국인관광객 무사증 입국 허용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특별법 제정 등 제주관광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 된 시기다. 이 무렵 제주관광 연구동향은 ‘호텔’과 관련된 ‘만족’ 및 ‘영향’ 연구를 주로 하였고 국제회의·국제자유도시·지역축제와 관련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기(2003~2005년)의 경우 ‘호텔’과 관련된 ‘영향’ 연구의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았다. 특이한 점은 이전 제주관광 연구주제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행동·심리연구에서, 이 시기 ‘호텔 종사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영향’ 및 ‘인식’ 연구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는 ‘호텔’에 연구로

편향된 경향이 있었으나, 이 기간에 ‘문화’·‘골프장’·‘펜션’ 등으로 연구 대상이 다양화 되었다. 이는 2002년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영향으로 골프장 입장료 인하 내지 휴양펜션업의 법제도화라는 관광환경의 변화가 연구주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2003~2010년 제주관광 연구 제목의 네트워크 지도



4기(2006~2010년)에는 제주관광에서 급성장중인 ‘중국’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중국인관광객’에 대한 ‘방문동기’와 ‘민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기에 이어 4기에도 연구대상이 카지노·축제·관광목적지 등으로 다양화 되었는데,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관광객전용 카지노’ 추진과 전국적인 ‘지역축제 붐’, 제주를 하나의 관광목적지로 인식하는 등의 관광환경 인식변화가 연구주제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시기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동향을 종합해 보면, 다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약·정리된다.

〈표 9〉 제주관광 연구동향 분석결과 종합

구분	내용분석		의미연결망	
	연구대상	연구주제	주요 단어	신출 단어
전체	① 관광전체 ② 숙박·외식	① 관광행동/심리 ② 관광마케팅	① 호텔-서비스-고객-만족-영향 ② 주민-인식-영향 ③ 관광객-동기-만족	-
1기 (‘82~’97)	① 관광전체 ② 숙박·외식	① 관광행동/심리 ② 관광개발·경영	① 호텔-서비스-만족-영향 ② 개발-영향-인식	개발, 산업
2기 (‘98~’02)	① 관광전체 ② 숙박·외식	① 관광행동/심리 ② 관광마케팅	① 호텔-고객-만족-영향 ② 산업-인식-영향	국제, 축제
3기 (‘03~’05)	① 관광전체 ② 숙박·외식	① 관광행동/심리 ② 관광마케팅	① 호텔-종사원-영향-인식 ② 개발-주민-인식 ③ 골프장(펜션)-이용자-특성	문화 서비스
4기 (‘06~’10)	① 관광전체 ② 관광· 편의시설	① 관광행동/심리 ② 관광마케팅	① 중국-관광객-동기-만족 ② 카지노-관광객-주민- 영향-인식	목적지, 여가, 조직

주: 굵게 표시한 글자의 경우 연구시기별 특징적인 주요변화를 나타내는 정후의 단어임.

V. 결론 및 시사점

제주학은 지역학이며, 지역학은 분과학문의 배타적 장벽을 허물어 해당 지역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려는 연구이다(신행철, 2011). 생각건대, 제주관광에 대한 종래 연구가 지역학적 측면에서 제주학의 한 분야로 자리잡아가기 위해서는, 그 동안 제주지역에서 수행되어 온 제주관광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1982년~2010년까지 제주지역에서 발표된 제주관광 연구 논문들을 연구시기별·연구대상별·연구주제별로 분류하여 저간의 연구 동향을 파악해 보았다. 이를 위해 제주대학교와 탐라대학교에서 배출된

석·박사 학위논문과 함께 3개 지역학술지에 게재된 제주관광 게재논문 등 총 349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현재까지 제주관광 연구대상은 관광일반으로 분류된 연구논문들이 129편(37.0%)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텔중심의 숙박·외식관련 연구가 71편(20.4%)으로 그 다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주관광 연구대상으로서 뚜렷한 분야는 바로 호텔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주관광에서 호텔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비중이 높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이전까지 주요 연구대상이었던 호텔 등 숙박·외식 분야에 대한 연구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관광시설 및 편의 시설, 컨벤션 및 축제, 문화 및 유산 등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골고루 이루어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제주 관광산업의 융복합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다양한 관광정책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향후 제주관광 연구의 초점이 보다 다양하고 융·복합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전개돼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구주체의 경우 1982년 이후 지난해까지 관광행동·심리에 관한 연구분야에 경도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2006년 이후로 국제 관광에 관한 연구가 차츰 증가해 왔는데,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비롯해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그리고 중국인관광객의 내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제주관광 연구주체의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변화가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기술보급의 확대양상으로 향후에는 모바일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관광정보분야의

연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총 349편의 연구논문 제목에 나타나는 단어를 대상으로 의미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제주관광 연구에서는 호텔과 영향·만족, 주민과 인식·영향간의 공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호텔에 대한 관광객 만족 및 영향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주민인식과 영향에 관한 연구가 1982~2010년까지 제주관광 연구대상과 연구주제의 핵심 키워드였다고 파악된다.

이를 연구시기별로는 구분해 살펴보면, 1기(1982~1997년)에는 개발과 사업이라는 단어가 논문제목에서 새롭게 출현하였다. 그리고 2기(1998~2002년)에는 국제와 축제, 3기(2003~2005년)에는 문화와 서비스, 4기(2006~2010년)의 경우 목적지·여가·관광조직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따라서 각 시기별로 중복되어 새로이 출현하는 단어들을 통해, 그 당시 제주관광의 시대적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그간 제주에서 발표된 지역관광 연구동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저간의 연구대상 및 연구주제와 함께 향후 제주관광 연구방향을 예견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적 시도는 제주관광 연구를 제주학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견지해 나가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제주학의 학문적 자리매김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졌다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우선 연구대상 선정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연구대상을 제주지역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과 3개 지역학술지 게재논문으로 국한하였으나, 그 밖의 제주관광 연구실적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광범하고 심도있는 자료수집을 통해 연구대상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학술지를 정의하는 기준도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구논문의 발췌가 완전하지 못해 지역학술지 일부 논문들의 경우 제목으로만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내용분석에서 연구방법 및 통계기법, 피인용도 분석 및 질적수준 등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연구과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처리하기 위해서는 연구목록에 제시된 연구논문들을 소장한 개개인에 대한 파악이 선결되어야 한다. 아무래도 지역학계 차원에서 관련논문과 향토자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엇갈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대권(2006), 「관광연구동향에 대한 국내·외 비교연구」, 『산업경영연구』, 제29권 제1호, 제주대학교산업경제연구소.
- 김사현(1999), 「우리나라 관광학술지의 연구논문 성향분석: ‘관광학연구’지의 성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관광학회.
- 김용학(2004),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 김정근(1990), 「한국의 관광학연구 성향에 관한 고찰」, 『관광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관광학회.
- 박성희(2009), 「제17대 대통령 후보 합동 토론 언어네트워크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제45권, 한국언론정보학회.
- 박한우·Loet Leydesdorff(2004),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6권 제5호.
- 박호표(1999), 「한국과 외국의 관광학연구 동향에 관한 비교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호텔경영학회.
- 변우희·조광익·김기태·한상현(2008), 「관광학 연구동향 및 교육과정 분석과 『觀光學總論』의 구성체계」, 『관광학연구』, 제32권 제4호, 한국관광학회.
- 배현석(2001),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신행철(2011), 「제주학에 거는 기대와 우려」, 제주불교신문, 2011. 10. 21.
- 안현주(2007), 「우리나라 관광학 연구 논문주제의 변화연구: ‘관광학연구’지 게재논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2007 인천 국제관광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관광학회.
- 오익근(2000), 「내용분석의 관광연구 활용」, 『관광학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관광학회.
- 이동훈·지봉구·김대권(2004), 「국내 관광관련 박사학위논문 연구동향」, 『관광·레저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관광·레저학회.
- 이연택(1994), 『관광학연구의 이해』, 서울: 일신사.
- 장성수(1987), 「제주관광연구의 동향 및 전망」, 『제주도연구』, 제4집, 제주도연구회.

- 조한익(2011), 『문화콘텐츠 연구동향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환(2003), 『관광학술지 연구논문에 관한 내용분석: ‘관광·레저연구’ 학술지를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관광·레저학회.
- 한광중(2003), 『사회과학 방법론으로서의 연결망 분석기법 적용의 의의와 연구과제: 의미의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한희선(2008), 『SPSS를 활용한 사회조사분석』,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 홍성화 · 최병길 · 이성은(2006), 『국내 관광분야 축제 이벤트 연구논문 내용분석: 1995-2004년 연구경향과 분석방법 검토』, 『관광학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관광학회.
- Allan M. Collins & Elizabeth F. Loftus(1975). A Spreading-Activation Theory of Semantic Processing, *Psychological Review* 82(6).
- Dann, G., Nash, D., & Pearce, p.(1988). Methodology in tourism resear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1).
- Echtner, C. M. & T. B. Jamail(1997). The Disciplinary Dilemma of Tourism Stud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4).
- McNamara, T. P(1992). Theory of Priming: Associative Distance and La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s* 18(6).
- Xiao, H. & Smith, S.(2006). The making of tourism research insight from a social sciences journal.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2).

Abstract

A study on trend of Tourism Research in Jeju

based on semantic-network analysis

Jang, Sung-Soo* · Kim, Jong-Ki**

Jeju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was the first to be established among Korea's national universities in 1973.

Since then, deeper studies on tourism in Jeju spark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ourism-related graduate schools after the year of 1990.

Studies on tourism have been carried mostly focused on analysis of tourism trends. These outcomes have been very helpful for understanding of tourism trends and policy making.

Nevertheless, trend analysis studies on researches into tourism that have been carried out in Jeju are almost non-existent.

Accordingly, analysis of theses related with Jeju tourism that have been published in Jeju is in need. Moreover, it is considered that reviewing accumulated outcomes of studies based on objective standards is meaningful.

In the following study, topics and objects of previous studies on Jeju tourism are to be looked into, using 349 theses-for degrees and academic journals-related with Jeju tourism that were published in Jeju from 1982 to 2010.

*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Jeju National University.

** Ph.D,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o this end, through “contents analysis” and “semantic-network analysis”, overall study trends in each period up to this date are to be presented.

Key Words

jeju tourism, tourism research, contents analysis, semantic-network analysis

교신 : 장성수 690-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
(E-mail : jangss54@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1. 12. 20.

심사완료일 2012. 02. 01.

계재확정일 2012. 02. 13.